

건축사의 자부심을 포기하지 말자

We don't Have to Give up the Pride of Registered Architects

裴東權/경남건축사회회장, 건미건축

by Bae, Dong-Kweon

최상 최고의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인간의 무한 욕망중 주거에 대한 비중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건축사의 사명감 또한 비례해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적자생존의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그야말로 전쟁하듯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가 남보다 더 잘먹고, 더 잘입고 하는 바람은 이제 어느정도 노력만 하면 욕구 충족이 가능하고, 일반화 됐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더 좋은 집을 소유하기 위하여, 또한 부의 축적 수단으로 나, 우리만의 이기심에 찬 인간의 최후의 욕망이 바뀌고 있다.

남의 욕망을 채워주고 꿈을 현실화해 주는 직업이 바로 우리 건축사가 아닌가 싶다. 이런 직업이 인기직업 서열에 끼지도 못하고, 선망의 대상은 커녕 불신과 매도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히 생각해 보자. 우리들 스스로가 긍지를 가지지 못하고 사명감을 망각한 탓은 아닌지, 우리의 위상은 우리가 창조해야지 남들이 만들어 주지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을 잊지 말아야 할 일이다. 아직도 우리사회 모든 분야의 의식구조가 경제 우월론에 따라 가진자의 사고방식과 이기주의의 횡포가 성실한 사람이 잘사는 사회의 정의사회 구현이 요원한 상황에서 온갖 행정규제의 모든 책임을 행정 편의주의에 따라 면허라는 울가미에 묶여 차라리 감내하고 마는 입장이고, 실권없는 건축사의 미약한 설득력 만으로는 대단히 힘겨운 일임에 틀림이 없다. 그래도 우리 건축사는 생활 예술인의 창조자로서 최고 직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신용을 담보로 하여 건축주의 이기주의를 꺾고 설득할 수 있는 기술자가 먼저 되어야 한다.

오늘날 수많은 인기직업 중에서 존경은 못받더라도 세인들의 비난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의사와 변호사라는 대표 직업과 우리 건축사라는 직업을 사회통념상의 관점에서 비교해 보자.

인간은 가장 강한척 하면서도 위기 상황에 처하면 나약해지고 곤경에 빠지면 미련하리 만큼 순수해 지기도 하지만 조금만 여유가 있다 싶으면 우월감이 발작하여

안하무인격이 되는 습성이 있나 보다. 병들어 죽을 지경에 처하다 보면 모든 것 소용없고, 그저 선생님 낮게만 해주시고 살려만 주십시오. 뭐든지 다 들어 드리겠습니다. 병들어 나약한 정상인이 아닌 애원하는 환자들이 주 고객인 의사는 위대해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 고분고분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어쩌다 나만 잘먹고 잘살아 보겠다는 본능의 과욕때문에 순간의 실수로 범법자의 신세가 된 죄인이나 사기당한 억울한 신세의 다급한 순간의 짜증스런 고달픈 고민자들의 소망은 오직 벌금형이라도 좋으니 풀려나게만 해달라고 매달리는 입장이고 보면 변호사의 존재는 구세주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런가 하면 우리의 상대 고객들은 어떤 분들인가? 자수성가 해서 돈벌어 최후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거만하고 자신 만만한 비교적 성공한 사람이라고 자처하고 목에 힘주는 건축주가 아닌가. 여유가 있고 돈이라는 위력의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 어지간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주려고 하질 않는다. 내돈 가지고 내맘대로 건축하겠다는데 건축법이 뭐고 남의 입장은 안중에도 없다. 혹시 건축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재산손실이라도 있을까 해서인지 남의 말을 믿으려 하지않고 피해의식에 젖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마지막 전재산을 투자하여 평소의 한과 꿈을 이루는 순간이니 오죽하라! 그 기분 우리가 모를 리가 있겠는가. 그러니 더더욱 우리 건축사는 책임을 통감하고 실수하지 않게 후회없는 좋은 집을 짓게하기 위해 내집 짓는 기분으로 설득하고 온갖 아이디어를 동원하여 수십가지 계획안을 놓고 아양까지 떨어가며 애교도 부려본다. 다차원의 창작품 구상을 그림 몇장으로 설명 할래야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난해하고 납득이 안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금까지 그런 좋은 집에 살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각 분야마다 전문가가 있지 않은가? 모르면 전문가에게 맡기고 일임해서 잘해 달라는 부탁만큼 어렵고

28년동안 국가정책의 지원이나 보조없는 자생단체로서 협회를 구심점으로 혼연 일체가 되어 민족문화의 창조자로서 수십차례의 격변기 속에서도 열악한 국민 주거환경의 개선은 물론, 국가 건설의 근대화 사업에 묵묵히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오늘과 같은 괄목할만한 발전과 번영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음에도 어느 누구 건축사의 역할을 챙겨주는 사람하나 없는 냉혹한 현실을 인식하고, 건축사의 위상정립을 재고해야할 시점이라고 본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 건축사는 건축사협회를 중심으로 정직한 신념을 밀천으로 지역사회 번영의 길잡이가 되어 파괴된 생활 환경을 개량하는 선구자적 봉사자가 되어야한다.

현명한 주문인 것을 왜 모르는가? 언제 건축사 아닌 건축주가 되어 보는게 우리 건축사의 소박한 꿈이 아닌가? 하도 안타깝고 답답해서 내 계획안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건축주가 되는 길밖에 없으니 말이다.

몸이 아파 병들었을 때 의사의 진단을 무시하고 거역할 수 있는가. 의료수가만큼은 선불하고 청구하는 대로지 깎아 달라고 감히 누가 때를 쓸것인가. 또한 송사에서 패소를 한다해도 변호사에게 환불요구는 커녕 항의라도 할 수 있던가. 패소하면 법이 그러하니 당연한 것이고, 승소하면 변호사 채주와 실력 때문이니 사례금까지 청구하는 입장이니 협정요율이 얼마인지 감히 물어볼 엄두도 못내고 10분상담에 얼마라는 상담료 요금표를 게시해 놓고 답답해서 몇마디 법률상식 물어보는데 상담료까지 요구해도 당연지사라 받아들이는 순진한 고객들에 비하면 우리 건축주는 차원이 높고 통이커서 좋긴하다.

한건 수주하기 위해 손발이 닳도록 뛰어 다니고 온갖 재주를 동원하여 비위를 맞추고 수만가지 규제조항 찾아 법망의 제한속에서 최대한의 건축주 영리수단을 강구하여 밤새워 만든 여러가지 계획안을 입이 아프도록 설명해 본들 한가지 비위만 안맞으면 휴지가 되고만다. 각고의 노력끝에 채택되면 설계비 깎아먹는건 이골이 나서 할려거든 하고 말려면 말아라 하는 식이다. 여기저기 경쟁부처 선택에서 제외되면 말한마디 없이 그것으로 끝나 버리니 몇마디 상담해 주고 상담료까지 챙기는 그런 직업의 순진한 고객이 존경스러울 뿐이다.

이런 건축주를 내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건축사는 만물박사가 되어 박식해야 하고, 사람을 다스릴 줄 아는 사교성이 뛰어나야 하고, 믿음을 줄 수 있는 검소한 생활인이 되어야 하며, 한건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건축사의 품위에 저해되는 행위는 결단코 자제할 줄 아는 건축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요즘 듣기 좋은 유행가 “애모”의 노래도 자꾸 들으니 지겹던데 하물며 직업에서 늘상 대하는 상대가 병든자,

노약자, 도둑놈, 범법자의 쩡그린 얼굴의 어려움에 처한 짜증스런 사람들의 위기심리를 이용하여 편하게 돈버는 직업보다는 즐겁고 여유있고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출세한 사람만 상대하는 우리의 직업인 건축사가 선망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의사, 변호사가 그렇게해서 돈벌면 결국 찾게되는 곳은 우리 설계사무소를 찾는 일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우리의 고객이 되어 마지막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말이다. 환회에 찬 여유 만만한 사람들만이 고객이 될 수 있는 우리 건축사의 직업이야말로 얼마나 신나고 즐거운 직업인가?

그런데도 이렇게 좋은 직업을 우리 스스로가 격하시키고 국가에서 인가해 준 보수요율하나 제대로 받을 줄 모르고, 서로 실력경쟁은 하지 않고 가격 경쟁으로 남이 애써서 계획설계까지 해놓은 것을 하등의 가책없이 가로채는 일이 허다하지 않은가?

자존심은 포기하고 건축사라는 호칭이 부끄러워 건축사이면서 건축사이기를 포기하고, 자칭 “건축가”로 자처하는 우는 범하지 말자! 자성해 불일이다.

저마다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다할 때 우리의 위상은 지켜지는 것이고, 존경받는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건축사 아닌 다른 사람이 위대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결코 아님을 명심하자.

28년동안 국가정책의 지원이나 보조없는 자생단체로서 협회를 구심점으로 혼연 일체가 되어 민족문화의 창조자로서 수십차례의 격변기 속에서도 열악한 국민 주거환경의 개선은 물론 국가 건설의 근대화 사업에 묵묵히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오늘과 같은 괄목할만한 발전과 번영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음에도 어느 누구 건축사의 역할을 챙겨주는 사람하나 없는 냉혹한 현실을 인식하고, 건축사의 위상정립을 재고해야할 시점이라고 본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 건축사는 건축사협회를 중심으로 정직한 신념을 밀천으로 지역사회 번영의 길잡이가 되어 파괴된 생활환경을 개량하는 선구자적 봉사자가 되어야한다.